

#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다문화수용성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승조  
국방과학연구소

## (A) Study on Effec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Awareness of Unification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Seung-Jo Han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다문화수용도가 통일 필요성 인식에 구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잠재변수로서 다문화수용도, 북한이탈주민 친근감, 통일 필요성 인식을 선정하여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모형을 구성하였다.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는 2015년에 통일연구원에서 수행한 남북한통합 국민의식 조사 자료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다문화수용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친근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 친근감도 통일필요성 인식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친근감은 매개변수로서 부분매개보다는 완전매개변수로 작용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후세대에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해짐에도 다문화 사회로 변하는 현상이 통일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데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도 궁극적으로는 통일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의 증가가 통일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연구분야가 도출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구조방정식, 다문화수용성, 매개모델, 통일인식, 북한이탈주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ffects the perception of necessity of unification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amiliarity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awareness of unification were selected as the latent variables and the full / partial mediator models were built for structural equations. The observed variables for each latent variable were data that were collected through the National Survey on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in 2015. As a result,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imacy of the defectors, which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ecognition of the need for unification. The intimacy of the defectors was more influential as a parameter for full mediation than for partial mediation. Although the consciousness of unification gets weakened by postwar generations, that the phenomenon that changes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plays a part in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In addition, the increase of North Korean defectors may ultimately become a factor in recognizing the need for unificat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increasing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can increase the need for unification, which means that more research fields can be derived.

**Key Words** : Structural equati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ediator model, Awareness of unification, North Korean defector(s)

Received 11 August 2017, Revised 12 September 2017  
Accepted 20 October 2017, Published 28 Octo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Seung Jo Han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Email: seungjo1651@add.re.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으로 이루어 지거나 단일민족 속에 소수의 다른 민족이 존재는 하지만 그 수가 극히 적어 국가 구성에 영향이 미약한 국가를 말하는 단일민족국가(單一民族國家)로 인식되었고 많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세계화, 국제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의 개념이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적으로도 이러한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7년 3월 기준으로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해외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뜻하는 등록외국인의 수는 1,144,532명으로 2년 전인 2015년 856,407명에 비해 33%가량 증가되었다[1]. 또한 다문화 가구수는 2015년 기준으로 299,241개[1]로 201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별도의 국적취득절차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문화가구에는 속하지 않지만, UN에서 가입한 하나의 국가로 간주할 경우 이들도 다문화인구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 30,490명이며 이는 10년 전인 2007년의 2,028명과 비교해서 14배가 증가한 수치이다[2].

통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로 경제적 부강, 국제사회의 영향력 확대, 전쟁위험의 감소 기대가 반영되거나[3], 민족 및 민주주의와 연관되어 민족적 정체성과 시민 정체성의 확대 기대[4] 등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남북 간의 우호정도에 따른 통일인식의 변화[5] 등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다문화수용성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는 최근에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민족의식, 경제력 확충, 군사적 위협 감소 등과 같이 통일인식에 영향을 주었던 기존의 영향이 아닌 단일민족 우월의식의 탈피 및 세계화 추세를 반영하여,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 모델(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 2.1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은 서로 다른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들이 하나의 사회에서 수용되는 정도로 표현되며[6]. 본인 문화의 우월성만 강조(요)하지 않고 폭넓은 사고를 지니면서 공존과 협력의 대상으로 타 집단 및 문화를 인정하는 태도이다[7]. 이러한 다문화수용성은 통일교육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북한에 대해서도 다름을 인정하면서 대화와 신뢰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다[6].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정도를 다문화수용성으로 개념화하기도 하고,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다문화 지향성) 정도를 측정하기도 한다[7,8].

일반 국민이 다문화를 접하는 통로는 대중매체, 관련 교육 등 다양하지만 교육에 국한한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교육, 특히 북한과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통일 후 우리나라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결과가 있으며[9], 북한이탈주민이 한반도의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분명히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10]도 존재한다.

백시내의 연구[11]에 의하면 다문화 지향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통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자민족 지향적일수록 부정적인 태도일 것임을 설문과 통계분석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위 연구는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외에도 국민정체성이라는 독립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델의 구조적인 틀에서 연구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1:1 대응에서의 유의한 차이만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 2.2 통일인식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이주민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통합정책을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다문화정책과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다[12].

통일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 경제/사회적 교류 등을 통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민들의 통일인식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태도에 따라 통일의 방식과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국민들의 동독의 서독으로의 편입 선택과 같이 통일여부 자

체가 결정될 수도 있다.

2007~2011년에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에서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도마다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50~55%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고, 사회 전체에 통일이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한 인원은 50.7% 수준이었다. 다만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한 인원은 응답자의 27.8%뿐이었다[12]. 또한 2012년에 김경은과 윤노아에 의해 실시된 청소년들의 통일외식 조사결과에 서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63%가 동의하고 있으며, 통일의 의의가 단일민족성의 회복이라는 응답은 31.8%로 낮게 나왔지만,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의 공존이 다양성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57.2%로 높게 나타났다[6].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사회로의 급변은 영토중심의 통일의 의미에서 벗어나 사고와 가치, 문화중심의 통합으로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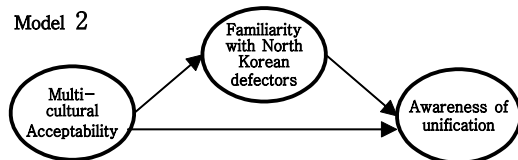
### 2.3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다문화수용성과 통일의식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 다문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는 다문화수용성을 증대시키고 있고, 증가되는 문화수용성은 통일의식을 긍정적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도 다문화집단의 일부로 간주한다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통일의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Model 1



Model 2



[Fig. 1] Initial Model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가정은 첫째, 다문화수용성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증대시키고(H1),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친근한 인식의 향상은 통일의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H2)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개념모델이 [Fig. 1]과 같다. 북한이탈주민 친근감이 모델에서 완전매개 변수(Model 1)로 작용하는지 부분매개 변수(Model 2)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개의 모델을 설정하였다.

## 3. 모델 구축 및 분석

### 3.1 구조방정식 모델 및 분석자료

구조방정식 모델은 다양한 측정변수로부터 축소된 잠재변수 사이의 경로를 설정하여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분석기법이다[14]. 구조방정식 모델에 사용되는 SW는 LISREL, AMOS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AMOS(Ver. 21)를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 가정 하에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도 최대우도법이 이용되었다[15].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
Gender	Male	496	50
	Female	504	50
Age	19 ≤ Age < 30	177	18
	30 ≤ Age < 40	184	18
	40 ≤ Age < 50	212	21
	50 ≤ Age < 60	200	20
	60 ≤ Age	227	23
Residence	Seoul, Incheon, Gyeonggi	493	49
	Busan, Daegu, Ulsan, Gyeongsang	261	26
	Daejeon, Chungcheong	103	10
	Kwangju, Jella	102	10
	Gangwon, Jeju	41	4
Education	Edu. ≤ Middle School	148	15
	Edu. = High School	466	47
	College ≤ Edu.	386	39

모델에 입력되는 자료는 2015년 8월에 연구주관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의뢰한 남북통합 국민의식 조사 설문을 현대리서치연구소에서 수행하였고, 기관의 동의를 얻고

Law data를 획득 하여 활용하였다. 조사지역은 전국이었으며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방식으로 표집되었으며, 결측치(Missing data)는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1>은 설문에 참여한 인원들의 주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3.2 변수 선정 및 분석

[Fig. 1]에서와 같이 잠재변수(Latent variable)는 3개이며, 이를 직접측정하기 위한 관측변수와 관측변수의 기술적 통계량이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에서 보듯이 모든 관측변수들이 유의수준 0.05 및 0.01수준에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가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정규성 충족)으로 판단되었다[16].

또한 AMOS 프로그램에서 다변량첨도지수(Multivariate Index)를 확인한 결과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충족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결측치가 없는 자료를 사용한 본 연구는 최대우도법을 이용한 모수 추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17].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표에서와 같이 모든 변수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가설에서 제시한 개념들 간의 방향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Latent and Observed Variables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s (N = 1,000)	Scale	Mean(SD)	Skewness	Kurtosi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Supporting the increase of North Korean defectors	4-point Likert Scale (1, 2, 3, 4)	2.36(0.70)	0.17	-0.14
	Supporting the increase of marriage immigrants		2.32(0.64)	0.33	0.12
	Supporting the increase of foreign workers		2.29(0.77)	0.04	-0.46
	Supporting the increase of Korean-Chinese		2.18(0.73)	0.13	-0.34
Familiarity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ccept as a neighbor		2.44(0.71)	-0.27	-0.34
	Accept as a colleague at work		2.49(0.72)	-0.26	-0.29
	Accept as a marriage partner		2.04(0.72)	0.21	-0.35
Awareness of unification	Increasing social profit		2.59(0.78)	-0.16	-0.36
	Increasing personal profit		2.25(0.77)	0.31	-0.19
	Supporting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2.86(0.82)	-0.29	-0.52

<Table 3> Correlation of Observed Variables

Observed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Supporting the increase of North Korean defectors(1)	1	0.456**	0.342**	0.474**	0.459**	0.425**	0.415**	0.170**	0.121**	0.209**
Supporting the increase of marriage immigrants(2)		1	0.500**	0.400**	0.296**	0.224**	0.284**	0.115**	0.124**	0.108**
Supporting the increase of foreign workers(3)			1	0.444**	0.173**	0.133**	0.199**	0.115**	0.064*	0.008
Supporting the increase of Korean-Chinese(4)				1	0.302**	0.264**	0.283**	0.117**	0.084**	0.083**
Accept as a neighbor(5)					1	0.772**	0.538**	0.280**	0.220**	0.240**
Accept as a colleague at work(6)						1	0.523**	0.237**	0.201**	0.222**
Accept as a marriage partner(7)							1	0.265**	0.245**	0.213**
Increasing social profit(8)								1	0.605**	0.510**
Increasing personal profit(9)									1	0.439**
Supporting the necessity of unification(10)										1

\*\* : significant at  $\alpha = 0.01$ , \* significant at  $\alpha = 0.05$

&lt;Table 4&gt; Analysis Results of Estimate Model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s	Estimate	S.E.	C.R.	P	Standardized coefficien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Supporting the increase of North Korean defectors	1.000	-	-	-	0.714
	Supporting the increase of marriage immigrants	0.847	0.051	16.731	0.000	0.665
	Supporting the increase of foreign workers	0.901	0.059	15.250	0.000	0.588
	Supporting the increase of Korean-Chinese	0.956	0.058	16.612	0.000	0.658
Familiarity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ccept as a neighbor	1.000	-	-	-	0.901
	Accept as a colleague at work	0.963	0.033	28.747	0.000	0.849
	Accept as a marriage partner	0.695	0.034	20.571	0.000	0.619
Awareness of unification	Increasing social profit	1.285	0.078	16.462	0.000	0.836
	Increasing personal profit	1.099	0.066	16.621	0.000	0.719
	Supporting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1.000	-	-	-	0.615

### 3.3 구조방정식 모델 실행 결과분석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Model 1을 실행하여 모델의 적합도(Model Fit)를 살펴보면,  $\chi^2 = 232.527$ (df = 33, p-value = 0.000), CFI = 0.942, TLI = 0.921, RMSEA = 0.078로 나타났다. 또한 Model 2에서도 유사하게  $\chi^2 = 231.688$ (df = 32, p-value = 0.000), CFI = 0.942, TLI = 0.919, RMSEA = 0.079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모델 모두 대체적으로 모델 적합도가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두 모델의 매개효과를 판단은  $\chi^2$ 의 차이를 이용하였다.  $\Delta\chi^2 = 0.839$ (df = 1)로써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3.84 이하였기 때문에 완전매개 모델이 더 적합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Model 1의 완전매개모델을 통한 분석이 더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18].

&lt;Table 5&gt; Model Validity

Latent Variables	CR	AVE	Resul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0.857	0.601	Valid
Familiarity with North Korean defectors	0.910	0.774	Valid
Awareness of unification	0.840	0.640	Val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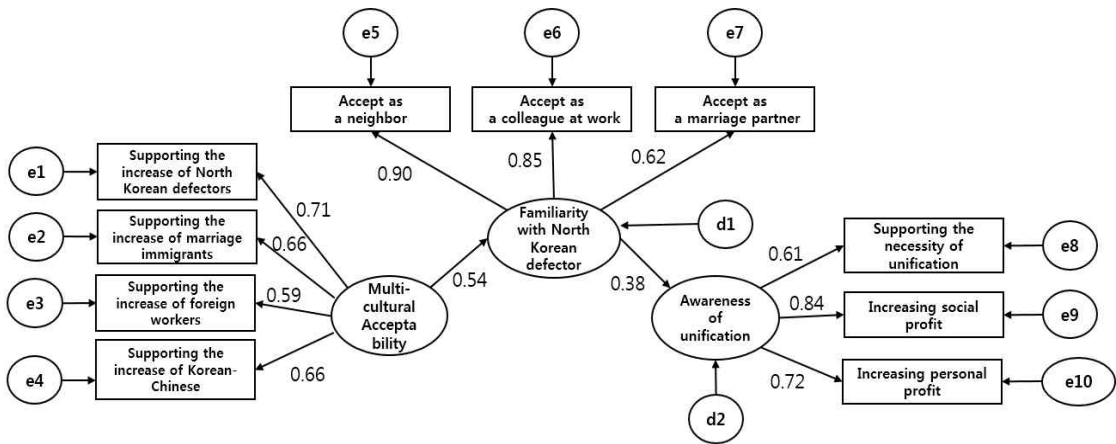
&lt;Table 6&gt; Results of Hypotheses Test

Hypotheses	Estimate	Standardized coefficient	S.E.	C.R.	P	Result
H1(+): Multi-cultural Acceptability → Familiarity with North Korean defectors	0.697	0.545	0.052	13.315	0.000	Accepted
H2(+): Familiarity with North Korean defectors → Awareness of unification	0.301	0.379	0.032	9.382	0.000	Accepted

모델의 타당도 평가는 CR(Composite Reliability)과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이용하였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에서 CR은 0.7이상이었으며, AVE도 0.5 이상으로 모델의 타당도는 적합하고 판단되었다.

가설검정은 C.R.과 유의수준으로 판단하며,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C.R.| > 1.96일 경우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 수용도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의 친근감도 통일 필요성 인식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설 H1과 H2는 모두 채택되었다.

[Fig. 2]는 Model 1(완전 매개모델)의 최종적인 경로 모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수록 다문화의 일부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사회 내에서의 친근감(우호적 태도)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 나타내고 있다.



[Fig. 2] Final Model(Model 1)

####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이 통일 필요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여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매개변수로 북한 이탈주민 친근감을 선정하여 그 효과도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 친근감은 부분매개보다는 완전매개의 효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였고, 완전매개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생 잠재변수(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북한과의 관계는 분단 후 60년 이상 교류가 제한적이었으며 1991년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동시에 각기 다른 국가로써 UN에 가입함으로써 동일민족이지만 사고와 문화적 차이가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전후세대는 북한도 동일의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인 아닌 다문화의 일부라는 인식이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보듯이 다문화수용성이 커질수록 다문화사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개인이 속한 사회, 작게는 각 개인에게 클 수 있다는 의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통일 필요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문화집단의 대중매체의 잦은 노출, 그리고 생활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문화집단 구성원의 증가는 다문화수용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고[6,7], 이러한 현상이 기존의 통일의 필요성을 단일 민족성 회복, 경제적 성장 기대, 안보위험의 감소와 같은 전통적인 기준에 제한하였던 것을 확장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다문화교육 등이 학교, 민간단체, 정부기관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문화를 집단 내에서 타집단이나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록 본인과 주변의 이익이 커짐으로써 통일의 단계에 접근이 수월해지고, 통일 이후의 혼란을 조기에 안정으로 돌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다문화의 필요성 및 통일의 필요성 교육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9,11].

본 연구에서는 통일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문화수용도와 북한이탈주민의 친근감 정도로 국한하였지만, 범위를 확대하여 이외의 다른 독립변수들을 발굴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수용 정도는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내에서 다중집단비교분석을 통해 분석결과를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Further Research).

하지만 본 연구는 위의 추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다문화수용도가 통일 필요성 인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증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 REFERENCES

- [1] DOI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kosis.kr>. 2017. 7. 7
- [2] DOI : Ministry of Unification, <http://www.unikorea.go.kr>. 2017. 7. 1
- [3] D. H. Baek and J. W. Lee, "Determinants of Korean Perception on National Unification: Focused on the Perception on Cost and Benefit of Unification",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ance Studies, Vol. 25, No. 2, pp. 205-224, 2015.
- [4] S. D. Baek and T. J. An,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National Identity on Their Unification Consciousness", The Korean Association of Yeolin Education, Vol. 24, No. 1, pp.39-58, 2016.
- [5] G. Y. Park, H. J. Cho and D. J. Park, "Factors Concerning the Consciousness of Unification and National Security",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Vol. 9, No. 1, pp. 33-58, 2016.
- [6] K. E. Kim and N. A. Yoon, "Adolescents' Per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Unification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Implication for Unification Education of Social Studies in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Studies Education, Vol. 51, No. 1, pp. 123-140, 2012.
- [7] I. J. Yoon and Y. H. Song, "South Koreans' Per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pp. 579-591, 2009.
- [8] S. W. Yoon and S. D. Kim, "An Empirical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Focusing on the Effects of Social Value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36, No. 1, pp. 91-117, 2010.
- [9] M. Y. Kim, "Effects of reunification education through multicultural educational approach on students' awareness of reunification", Ph. D. dissertation, Sungkonghoe University, 2010.
- [10] J. S. Kim, " The Adjustment of Korean Chinese and North Korean Refugees into Korean Society and Their Role in the Process of National Unification", Journal of DIASPORA Studies, Vol. 10, No. 2, pp. 291-310, 2016.
- [11] S. N. Baek, "South Korea's Per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the Attitude over Reunific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Vol. 32, No. 1, pp. 337-356, 2016.
- [12] Y. J. Lee, "Korean unification as a multi-cultural society : From the political frame of unification to integration in the social life", Studies of Northeast Asia, Vol. 29, No. 2, pp. 5-37, 2014.
- [13] P. Kim and K. H. Choi, "Comparative Analysis of Attitudes toward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Vol. 4, No. 1, pp. 101-139, 2012.
- [14] Y. J. Kim, "Research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Ordinal Variables : Transformation and Bayesian Approach", Ph. D. Dissertation, Kangwon University, 2016.
- [15] Y. K. Bae, S. Y. Ahn and J. H. Chung, " Analysis on Comparison of Highway Accident Severity between Weekday and Weeken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ol. 33, No. 6, pp. 2483-2491, 2013.
- [16] J. S. Lee, H. S. Jeon and M. S. Jeong, "An empirical study on the use intention to sharing economy services : focusing on price sensitivity, reliability an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7, pp. 57-72, 2016.
- [17] R. K. Kim and B. G. Park, "The effects of fellowship of coffee speciality members on LMX, Knowledge sharing, and job attitud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7, pp. 73-81, 2016.

한 승 조(Han, Seung Jo)



- 2003년 2월 : KAIST 산업공학과(공학석사), 아주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11년 9월 : 미)뉴욕주립대(버팔로) 산업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3년 2월 : 단국대학교 산업공학과(공학박사)
- 2014년 10월 ~ 현재 :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관심분야 : Biomechanics, 무기체계, M&S, Expert system, 정량적 의사결정
- E-Mail : seungjo1651@add.re.kr